

『별건곤』의 편집 체제 연구 - 식민지 저널리즘 공론장의 여론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이 선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언론 매체 중 편집 체제의 세련됨으로 평가받는 대중잡지 『별건곤(別乾坤)』의 저널리즘 공론장 구성 전략을 연구한다. 『별건곤』은 표면적으로는 오락적 대중성과 실용적 교양을 추구하면서도 각계각층의 여론 수집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선 민족의 공통 감각을 자극하기도 했고, 개벽사의 다른 잡지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을 대행하고, 식민지 조선의 대중적 저널리즘 공론장 다변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즉 『별건곤』의 가벼운 표면적 정체성은 식민지 현실에서 총독부의 검열을 피하며 암묵적이고 심층적인 대항성과 저항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편집 체제와 관련지어 살펴본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편집 체제의 전략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 창간호에서 제5호(1926.11.~1927.3.)까지는 취미란과 사회란을 매개로 민중적, 대중적 공론장을 조성해 가는 단계이다. 『개벽』의 폐간과 『신여성』의 휴간에 이어 개벽사에서 대중적 정체성을 표방한 잡지 『별건곤』을 창간했고, 『별건곤』을 통해 민중적, 대중적 여론을 수집하고 공론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로, 제6호에서 제28호(1927.4.~1930.5.)에 이르는 시기에는 특집호 기획과 특집기사 위주의 편집 체제가 두드러진다. 『별건곤』은 조선민족에게 공유되는 역사와 공간뿐만 아니라 동시대와 계열까지도 공통지식과 공통감각으로 만든다. 이는 조선적 표상 만들기를 넘어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의 존재 확인과 민족적 망탈리테를 구성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세 번째는 제29호에서 제37호(1930.6.~1931.2.)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별건곤』은 종합잡지 편집 체제를 도입하는데, 이는 당시 개벽사에서 표면화 하지 못한 지식인 저널리즘 공론장을 대행한다. 그러면서 대중잡지 『별건곤』은 체계화 된 대중적 공론장을 갖추어 간다. 마지막으로 제38호에서 제73호(1931.3.~1934.6.)에 이르는 시기의 『별건곤』은 대중적 공론장 내부의 다변화 전략을 보인다. 이 시기 『별건곤』은 중간독물에 주력하는데, 『별건곤』의 중간독물은 보다 유형화 되고 장르화 되어 편집 체제 레이아웃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잡지의 편집 체제 분석을 통한 식민지 저널리즘 공론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결핍과 부재로 존재하는 과거에 대한 하나의 독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동시기 다른 잡지들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식민지 저널리즘 공론장 전체의 지형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別乾坤(별건곤)』, 공론장, 식민지 저널리즘 공론장, 대중잡지, 종합잡지, 잡지 편집 체제, 권두언, 편집 후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1024176).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doskyee@hanmail.net

— 목 차 —

I. 서 론	IV. 종합잡지 편집 체제 도입기 (제29호~제37호, 1930.6.~1931.2.) - 지식인 공론장의 대행과 대중적 공론장의 체계화
II. 취미잡지 편집 체제기 (창간호~제5호, 1926.11.~1927.3.) - 취미를 매개한 공론장의 구성과 여론의 구성	V. 중간독물 중심의 대중적 종합잡지 편집 체제기 (제38호~제73호, 1931.3.~1934.6.) - 대중적 공론장의 다변화 전략
III. 특집기사 편집 체제기 (제6호~제28호, 1927.4.~1930.5.) - 저널리즘 공론장에서의 조선적 망탈리테 구축	VI. 결 론

I. 서 론

식민지 조선의 저널리즘 공론장은 결핍되고 불충분한 것이었다. 구상 단계에서부터 의식할 수밖에 없는 총독부의 검열과 실제로 행해지는 각종 언론 탄압으로 인하여, 현재 남아있는 식민지 조선 발행의 언론자료 들은 부재, 공백, 결여의 형태이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공론장을 구성하고 여론을 조직하려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개벽사에서 발행되었던 잡지 『別乾坤(별건곤)』(창간호~제73호, 1926.11.~1934.6.)¹⁾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별건곤』이 창간된 1920년대는 대부분 문화정치가 행해진 시기였다. 이것이 언론출판계에 미친 영향은 ‘조선인에게도 신문·잡지의 발행을 허가한다’는, ‘신문지법’에 의한 조선 민간의 신문과 잡지 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까지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출판지법’만이 허용되어 발행 가능한 내용이 종교, 학술, 문예 등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신문지법의 허가를 받은 언론에 한해서는 정치논평이나 시사문제도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최초로 조선 민간 발행 신문인 『조선일보』(1920.3.5.), 『동아일보』(1920.4.1.), 『시사신문』(1920.4.1.)이 창간되었고, 『신천지』(1921.7.), 『신생활』(1922.3.2), 『동명』(1922.9.), 『조선지광』(1922.11.) 등의 잡지들이 창간되었으며, 『개벽』(1920.6. 창간)이 1922년 9월 신문지법의 허가를 받아 이후 제29호(1922.11)부터 정치기사 게재가 가능해졌다.²⁾ 이러한 문화정치의 시행은 사실 3·1운동 이후 조선의 반일 감정을 표면적으로라도 잠재우는 동시에, 일제의 폭력지배를 비난하는 미국과 영국 등에 대한 요식적 대응이기에, 보다 효과적인 지배와 착취를 위한 교묘한 수법 전환에 불과했다.³⁾ 오히려 신문지법의 허용은 언론의 검열과 통제를 통해 식민 권력을 일상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킨 측면도 있었다.⁴⁾ 그러나 보다 정

1) 『별건곤』은 개벽사 발행의 잡지로, 1926년 11월 창간호를 발행해 1934년 6월 통권 제73호를 끝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1977년 경인문화사 발행의 영인본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자료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전자 자료를 참조했다. 이 자료들에는 제73호(1934.6.)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덕교의 『한국잡지백년』 2권(현암사, 2004, 36쪽)에는 제74호의 권두언 「회고 15년」 내용 일부가 제시되어 있다.

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50~51쪽.

3)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길사, 1980, 432~435쪽.

4) 박현호, 「문화정치가 신문의 위상과 반일검열의 내적논리-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학

교해진 일제의 통제 아래서도 식민지 조선의 저널리즘은 심층적이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대항적 공론장 조직과 여론 구성을 시도하는데, 『별건곤』은 그 한 양상을 보여준다.

『별건곤』은 ‘취미(趣味)’와 ‘실익(實益)’을 강조하며 대중잡지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등장했고, 출판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기에 정치, 시사적인 논의는 할 수 없는 잡지였다. 그러나 『별건곤』이 표방한 대중성과 통속성은 일종의 전략적 차원에서 읽어야 한다. 『별건곤』은 대중잡지의 정체성 안에서 비판적인 공론장 조직과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잡지의 편집 체제를 통해 나타난다. 『별건곤』은 햇수로 9년에 달하는 발행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편집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변화의 심층에는 공론장과 여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 숨어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별건곤』 편집 체제 전변의 통시성을 통해 식민지 저널리즘 공론장의 한 유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별건곤』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1) 『별건곤』의 텍스트 정체성에 대한 연구, 2) 『별건곤』의 특정 주제나 장르에 대한 연구, 3)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별건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1)에 대해서는 이경돈, 김복순, 김경미 등의 선행 연구가 있다. 이경돈은 『별건곤』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사화, 야담, 전설 등을 ‘취미독물’로 규정하고, 이를 계몽의 시대가 지나고 소설 외의 하위서사가 제도화 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⁵⁾ 김복순은 『별건곤』의 취미 정체성 강조가 대중을 공론장으로 소환하고 사생활을 사회화 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⁶⁾ 또한 김경미는 『별건곤』에서 순수 소설보다 취미독물이 더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잡지의 대중적 정체성을 규명한다.⁷⁾ 2)에 대해서는 별건곤의 특집호에 대한 연구와 역사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차혜영의 『별건곤』 자랑호와 경성호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특집 기획을 식민지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조선 표상 만들기과 연결하여 설명한다.⁸⁾ 후자에 대해서는 이승윤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별건곤』에 수록된 사실적, 허구적 역사물들이 민족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집단기억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⁹⁾ 3)에 대해서는, 개벽사의 개별 잡지와 출판 사항을 통시적으로 점검한 류석환의 연구¹⁰⁾와, 개벽사 내에서 『별건곤』의 발행체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세 시기로 구분한 김은규의 연구가 있다¹¹⁾

또한 근대적 공론장에서 언론의 기능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이 참조될 수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17세기 후반기 영국과 18세기 프랑스의 부르주아 문화 공간과 인쇄 매체를 통해 확산된 여론과 공론장 구성에 주목한다. 사적인 개인들의 자발적이고도 비정치적인 부르주아 문예 공론장으로부터 공공적이며 정치적인

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5) 이경돈, 「『別乾坤』과 近代 趣味 讀物」,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6) 김복순, 「별학(別學)의 탄생과 다원적 시민사회의 구성 - 『별건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1, 2014.

7) 김경미, 「『별건곤』의 순수 ‘소설’과 ‘취미독물’의 상관성 연구」, 『어문학』 135, 한국어문학회 2017.

8) 차혜영, 「개벽사 경성 표상의 정치학, 『별건곤』 1929년 9월 대경성 특집호 연구」, 『동학학보』 37, 동학학회, 2015; _____,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표상의 정치학, 개벽사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호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8,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9) 이승윤,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6, 한국문학회, 2012.

10) 류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 김은규, 「1920/30년대 근대 취미독물 잡지 <『별건곤』>을 통한 개벽사의 매체 발행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연구』 39: 2, 한국출판학회, 2013.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적 공론장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저널리즘의 역할이 크다.¹²⁾ 한편 저널리즘은 근대적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상상하게 한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특정한 언어의 장에서 유통되는 인쇄자본주의가 그 안에 소속된 개인들에게 민족주의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했음을 보여준다.¹³⁾ 같은 맥락에서 찰스 테일러는 공론장의 장소 초월적 행위 주체성에 보다 집중한다. 공론장은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인민 주권의 정당성의 척도로부터 힘을 얻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때 공론장 구성의 집단적 주체(인민 또는 민족)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전과는 상이한 역사 이해와 서사 양식(modes of narration)을 만들어 가게 된다.¹⁴⁾ 이러한 연구들을 한국적으로 적용하여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시기에 이르는 상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도 본 연구의 참고 대상이다. 손석춘은 조선 후기부터 형성된 공론장을 갈등구조에서 바라본다. 하버마스가 아래로부터의 공론장을 논의한 것과는 다르게, 조선 후기부터 저널리즘은 지속적으로 관 주도적인 것이었기에 공론장과 언론이 갈등구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민간신문들 중 하나인 『동아일보』의 사장인 박영효가 사실은 철종의 사위로 조선왕조 주도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의 창간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¹⁵⁾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송호근은 조선 후기에 유자(儒者) 공론장이 쇠퇴하는 반면 평민 담론장은 종교적, 문예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져가는 상황을 분석한다. 이후 갑오 정권에서 대한제국에 이르는 시기에 지식인 공론장과 세속적 평민 공론장이 연대, 공명하여 국민을 호명하고 상상적 근대 국가 만들기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탄생했음에 주목한다.¹⁶⁾ 이러한 언론학, 사회학적인 연구의 거시적인 틀은 텍스트 자체로부터 공론장의 구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는 『별건곤』의 편집 체제에 나타난 공론장 구성과 여론 구성의 방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본문은 『별건곤』의 편집 체제 변화에 따라 구성되며, 각 시기에 『별건곤』이 시도했던 편집 체제의 심층적 전략을 분석한다.

II. 취미잡지 편집 체제기(창간호~제5호, 1926.11.~1927.3.)

- 취미를 매개한 공론장의 구성과 여론의 구성

창간호에서 제5호에 이르는 시기 『별건곤』은 취미잡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편집 체제를 보여준다. 이 시기는 아래 <그림 1> 『별건곤』 창간호(1926.11.) 목차에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구획이 선 명하게 구분된 레이아웃을 보여준다.

12) 위르겐 하버마스(지), 한승완(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13) 베네딕트 앤더슨(지), 서지원(역), 『상상된 공동체』, 길, 2018.

14) 찰스 테일러(지), 이상길(역), 『근대의 사회적 상상: 경제, 공론장, 인민 주권』, 이음, 2010.

15)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구조 변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_____, 「한국 공론장의 갈등 구조 -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7,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16) 송호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민음사, 2013; _____,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 변동』, 민음사, 2011.

분은 제5호까지 나타나며, 제6호(1927.4.)부터는 ‘문예란’과 ‘여성란’만이 남아 있고 그 이외의 구획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며, 이후 3달 만에 발행된 제7호(1927.7.)에서는 여성란마저 사라지고 문예란만 남게 된다. 이러한 『별건곤』의 초기 취미잡지 편집 체제 시기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취미란’과 ‘사회란’이다.

우선 ‘취미란’에서의 ‘취미’란, 『별건곤』 잡지의 정체성으로 표방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시대적 현상이기도 하다. 취미란 애초에는 제국의 책략으로 조선 평민에게 보급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된 노동과 생활고에 지친 평민들에게 위안과 여유를 주어 현재에 만족하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공통된 취미를 유포하여 귀족사회와 평민사회를 하나의 대중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별건곤』이 표면적 정체성으로 삼는 취미의 의미도 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¹⁸⁾ 이러한 이유로 『별건곤』이 취미의 확산을 통해 대중문화를 확산하고 대중 지성을 생성하는 매개가 되었다거나,¹⁹⁾ 놀이의 유효성을 강조한 취미 인간을 탄생시켜 사생활을 사회생활의 일부인 공적 영역으로 만들었다는²⁰⁾ 의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건곤』의 취미란은, 사회란 기획과 더불어 독해할 때 심층적이며 암묵적인 공론장의 구성과 여론 수집의 노력이 드러난다.

취미란은 ‘趣味論(창간호) → 知識과 趣味(제2호) → 趣味 · 知識(제3호) → 趣味 · 雜俎(제4호) → 常識 · 趣味(제5호)’로 구획의 명칭을 바꾸며 이어진다.²¹⁾ 창간호의 목차에서부터 “취미와 실익잡지”가 부제로 강조되고 있고, 창간호의 ‘취미론’ 구획에는 창간사로 볼 수 있는 두 편의 기사가 실려 있는 만큼 『별건곤』은 당대적 의미에서 취미론을 펼쳐나간다. 창간호 취미론에 실려 있는 두 편의 기사 「貧趣味症慢性的 朝鮮人」(碧

권호	구획
제5호 (1927.3.)	• 史話 · 人物 • 社會 · 雜俎 • 女性欄 • 常識 · 趣味 • 文藝

18) 이정돈, 「취미라는 사적 취향과 문화주체 대중」, 『대중문화연구』 57, 성균관대학교 대중문화연구원, 2007, 249~255쪽.

19) 천정환, 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 2006.

20) 김복순, 「별학(別學)의 탄생과 다원적 시민사회의 구상 - 『별건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1, 대중서사학회, 2014, 17~22쪽.

21) 창간호부터 제5호까지 취미란의 편성과 수록 기사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권호	취미란 명칭	기사 제목 (필자)	세부내용
창간호 (1926.11.)	趣味論	- 貧趣味症慢性的 朝鮮人 (碧梁)	취미론
		- 大宇宙와 趣味 (夜雷)	취미론
2호 (1926.12.)	知識과 趣味	- 印刷物은 엇더케 되는가 (原稿紙)	취미 매체 - 언론
		- 景品附大賣出 니약이 (一記者)	상식 - 경제
		- 民衆娛樂活動寫眞 니약이 (波影)	취미 매체 - 활동사진
		- 佛蘭西巴里求景 (鄭錫泰)	상식 - 해외
		- 四十年前 美國公使 갔든 니약이 (李商在)	상식 - 해외
3호 (1927.1.)	趣味 · 知識	- 八道正月風俗展覽會	상식 - 민간 풍속
		- 小說에 쓰인 人物은 누구들 (심生)	취미 매체 - 문학
		- 月宮에 계신 특기 前上書 (白특기)	상식 - 민간 풍속

朶)과 「大宇宙와 趣味」(夜雷)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벽타(이성환)의 「貧趣味症慢性의 朝鮮人」에서 조선의 무산 대중에게 오락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이나 우주가 취미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언급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의 개념을 토대로 『별건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취미를 통한 공통된 집합 장소의 확보이며, 이를 통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세계의 질서이다. 「빈 취미증만성의 조선인」은 총 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입부에서부터 강조되는 것은 인간 사고본능의 중요성으로, 진정한 사고를 위해서는 취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一, 人間性과 趣味, 二, 貧趣味症慢性의 朝鮮人). 이를 위해 『별건곤』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취미를 인쇄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조선 사회의 민중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 역설한다(三, 民衆 趣味의 意義 及 範圍, 四, 民衆的 趣味 印刷物의 價値). 이는 취미 저널리즘을 통한 조선 국가 전체의 공론장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실린 야뢰(이돈화)의 「대우주와 취미」가 대붕(大鵬)과 부유(蜉蝣)의 상대적 크기 이야기, 달걀 안에도 달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卵有毛), 흰 말이 사실은 흰 것이 아니라(白馬非白)는 일련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취미의 존재적 역동성이자 가변성이다. 즉 취미를 통해 조성된 사고적 공론장은 현재에는 그림자 같은 존재이지만 “그림자는 實地의 相對”이기에 언젠가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사 논의를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전복성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주에 정리된 것처럼, 『별건곤』의 취미란은 주로 새로운 취미 매체들과 상식들을 전달하는데, 위와 같은 논리로 취미가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면, 결국 그 최종 목표는 취미를 통한 집합적 공론 장소의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 『별건곤』의 ‘사회란’은 각계각층의 대중적 의견을 여론으로 조직하는 활력을 보여준다. 제2호부터 등장하는 사회란은 ‘社會(제2호) → 社會·雜俎(제3호, 제4호, 제5호)’로 그 명칭이 한 번 변경된다. 수록된 기사들은 일관된 유형을 보이는데, 크게 1) 세태 조사, 2) 고백/회상기, 3) 좌담회의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²²⁾ 이러한 유형의 사회란 기사들이 여론 조직의 방식인 것은 1) 세태 조사와 3) 좌담회의 경우는 민중의 다양한 의견의 확보로 볼 수 있고, 2) 고백/회상기는 지식인층의 대중화로 볼 수 있어서, 각계

권호	취미란 명칭	기사 제목 (필자)	세부내용
4호 (1927.2.)	趣味·雜俎	- 장가難! 시집難! (春坡)	상식 - 세태
		- 濟州島風俗이야기 (姜齊煥)	상식 - 민간 풍속
		- 엇더한 脚本을? (李慶孫)	취미 매체 - 연극
5호 (1927.3.)	常識·趣味	- 結婚失敗家例傳 (老總角)	상식 - 세태
		- 美男美女運動 (李慶孫)	상식 - 해외
		- 梅花와 水仙 (春汀)	상식 - 식물
		- 南北村 三時間 (又春)	상식 - 세태
		- 文士의 書翰 (諸氏)	취미 매체 - 문학

22) 2호부터 5호까지 사회란의 편성과 수록 기사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권호	사회란 명칭	기사 제목 (필자)	주제 분류
2호 (1926.12.)	社會	禮拜堂巡禮記 (YYY)	1) 세태 조사
		農村探情記 (春坡)	1) 세태 조사

각층의 의견이 공통된 장소에 수렴되어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창간호에서 제5호까지 전체 23개의 사회란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절반 이상인 12건에 달하는 1) 세태 조사이며, 이는 『별건곤』이 여론을 조직하는 특별한 방식이기도 하다. 기자들이 직접 조선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취재한 결과나 몰래 잠행하여 도시를 정탐하는 내용이며, 제목에도 순례기, 탐정기, 암행기, 탐사기와 같은 장르명이 등장한다. 이러한 발로 뛰는 취재는 『별건곤』이 예상 독자층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론의 구성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다.²³⁾ 세태 조사 장르들은 사회란이 사라지고도 『별건곤』에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후에 별건곤식 중간독물의 한 유형으로 굳어진다. 때로 세태 조사에는 허구의 형식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5호와 제6호에 연재되는 ‘지하국방문기’이다. 저승에 가서 홍경래, 이이, 이순신, 유길준 등을 만나 현 조선사회에 대한 세태 비판을 듣는다는 내용인데, 이는 이어지는 특집 기사 편집 체제 시기에 『별건곤』이 역사 담론을 통해 정체성을 구상하는 방식의 원형이 되는 부분이다.²⁴⁾

권호	사회란 명칭	기사 제목 (필자)	주제 분류
3호 (1927.1.)	사회·雜俎	記者總出 大京城自畫暗行記 第1回 (松雀, 春坡, 石溪, 波影, 磯岩)	1) 세태 조사
		對話 客과 村夫 (朴達成)	1) 세태 조사
		各 新聞·社會部 記者 苦心談 (柳光烈, 柳志永, 朴八陽, 馬濤)	2) 고백/회상기
		車天子 잡으라다니든 이악이 (鄭寅翼)	2) 고백/회상기
		變裝 記者 暗夜 探查記 (松雀生, 雪熊生)	1) 세태 조사
		貧亦難! 富亦難! - 農村探情記 其二 (春坡)	1) 세태 조사
		京城 商店 看板 品評會 (審查 金復鎮, 安碩柱)	3) 좌담회
4호 (1927.2.)	사회·雜俎	珍職業展覽會	1) 세태 조사
		朝鮮三大新聞의 經營苦心談 (金性洙, 李相協, 申錫雨)	2) 고백/회상기
		내가 첫 收入을 맞든 세 이악이 (李相協, 閔泰瑗, 玄鎮健, 韓基岳)	2) 고백/회상기
		因襲 打破 - 내가 새로 實行 하는 일 (白南奎, 金活蘭, 方定煥, 金英順, 玄德信, 申알베트)	2) 고백/회상기
		刺身鬼·阿片 魔窟 大探查記 (石火生)	1) 세태 조사
		甲辰 改革 實話 大同江을 警務廳 삼고 (羅龍煥)	2) 고백/회상기
		各 商店 陳列窓 裝飾 品評 (審查 安碩柱, 權九玄)	3) 좌담회
5호 (1927.3.)	사회·雜俎	珍職業展覽會	1) 세태 조사
		記者總出! 一時間探訪 大京城自畫暗行記 (제2회) (松雀, 春坡, 波影, 磯岩, 微笑)	1) 세태 조사
		地下國訪問記 (金玉均, 鄭生 謹記, 丁若鏞, 四溟堂, 朴堧, 許生, 論介)	1) 세태 조사
		二十年前韓國學界回顧 (張膺震, 崔奎東, 李潤柱, 崔斗善, 崔鳴煥)	2) 고백/회상기
		現下朝鮮의 七·七大不可思議 - 學界, 宗教界, 文人界, 出版界, 女子界, 商業界, 其他	1) 세태 조사
		學校를 卒業하고 就職하기까지 (金基鎮, 崔承一, 尹慎榮, 崔楠)	2) 고백/회상기
		내가 中學校를 卒業하든 세 (朴達成)	2) 고백/회상기

23) 이경돈은 1930년대의 대표적인 대중잡지 『三千里』의 대중성 확보를 ‘설문과 순례’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조선의 각 부분에 질문을 던지고 찾아다니는 과정을 통해 공론을 조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천리』보다 앞서 간행된 『별건곤』에서 우선적으로 시도된 방식이기도 하다(이경돈, 『『三千里』의 서사와 텍스트 정치 - 설문과 순례의 서사들』,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24) 『별건곤』의 허구적 역사 서사에 대해서도 그간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이승윤은 대중잡지인 『별건곤』이 사회, 전기, 야담 등 역사 소재의 글쓰기를 시도하는 것이 민중들에게 집단기억을 형성하게 하면서 취미를 통해 교양을 획득할 수 있는 계몽의 전략이었다고 논의한다(이승윤, 앞의 논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가람 역시 『별건곤』의 허구적 역사

총 9편이 등장하는 2) 고백/회상기는 이미 유명한 명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적 생활 이면을 고백하거나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언론계 기자들이 고심을 토로하고,²⁵⁾ 각계 명사들의 사회 초년병 시절을 회상한다.²⁶⁾ 이는 기존의 저널리즘 공론장을 주도하던 지식인 주체들을 친근하게 대중화 하면서 여론의 장을 보다 포용력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특히 이렇게 구성된 여론의 장이 일제에 저항적이며 대항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3호(1927.1.)와 제4호(1927.2.)에 연재되는 ‘조선 삼대 신문의 경영 고심담’에는 언론계가 처한 여러 난제가 각 신문사 기자들에 의해 제시된다. 표면적인 주제는 언론에 대한 민중의 이해를 바라는 내용이거나,²⁷⁾ 민중과 검열 당국 사이에서 양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갈등을 겪는 기자의 모습이지만,²⁸⁾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사들은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데 대한 상황을 환기한다.

총 2편이 등장하는 3) 좌담회 형태의 기사는 연속 기사로 「京城 商店 看板 品評會」(제3호)와 「各 商店 陳列窓 裝飾 品評」(제4호)이다. 좌담회 주제는 상점가의 간판과 진열창이다. “朝鮮 사람의 상업계에 조곰이라도 의 참고가 될가 하여”(「京城 商店 看板 品評會」) 마련한 이 좌담회는 구체적으로 저널리즘 공론장이 주제 측면에서도 대중적 다양성을 갖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별건곤』이 취미란과 사회란 기획을 통해 의도한 심층은 결국 공론장의 여론 구성 과정에 나타나는데 비판적 기능과 입법적 기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버마스가 분석한 유럽의 공론장에서, 개인의 의견으로부터 여론으로의 발전 과정에는 공공정신(public spirit)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비판적 토론을 통해 대립이 해소된 참된 의견, 정화된 의견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학자는 여론을 결정하고, 통치자는 전문적 지식에 의해 인도된 공중의 논의로부터 귀결된 것을 실천으로 전환시킨다. 여론은 사회적 질서의 기초에 대한 공동의 공적 반성의 계몽된 결과인 것이다.²⁹⁾ 여기서의 학자와 통치자의 역할을 식민지 저널리즘은 하나의 잡지 내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건곤』은 비판적인 학자가 되어 사회의 여론을 수집하고 정리했으며, 동시에 대중이 취미를 통해 공론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통치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시기 허용된 민간 발행의 신문이 일종의 입법기관이자 감독기관으로 대리정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존 연구³⁰⁾는 문화정치기 식민지 저널리즘 공론장에 요구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한다.

서사인 ‘드면록’에 주목하여 특정 역사적 인물의 호명과 대체역사 서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발견한다(정가람, 「1920~30년대 대중잡지 『별건곤』의 역사 담론 연구 -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1, 대중서사학회, 2014.).

25) 「車天子 잡으러다니든 이야기」, 『별건곤』 제3호; 「各 新聞·社會部 記者 苦心談」, 『별건곤』 제3호; 「朝鮮三大新聞의 經營苦心談」, 『별건곤』 제4호.

26) 「내가 첫 收入을 맞은 때 이야기」, 『별건곤』 제4호; 「學校를 卒業하고 就職하기까지」, 『별건곤』 제5호; 「내가 中學校를 卒業한 때」, 『별건곤』 제5호.

27) “언론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과 경제가 곤란한 것은 일반이 다 공통한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민중의 이해 업는 것이 제일 곤란한 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의 곤란도 곤란이요 언론의 부자유도 곤란은 곤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도가 다 민중의 이해가 업는 탓입니다.”

- 申錫雨, 「自由와 돈 外에 困難한 것 한가지」, 『별건곤』 제4호(1927.2.), 11쪽.

28) “일반민중의 의사와 시대에 적당하도록 언론을 발휘하려면 당국주의가 만고 당국의 주의를 안이받는 범위이내의 언론으로만 하면 민중이 환영치를 안습니다.”

- 金性洙, 「難關은 두가지」, 『별건곤』 제4호(1927.2.), 12쪽.

29) 위르겐 하버마스, 앞의 책, 205~210쪽.

30) 박현호, 앞의 논문, 216~218쪽.

Ⅲ. 특집기사 편집 체제기(제6호~제28호, 1927.4.~1930.5.)

- 저널리즘 공론장에서의 조선적 망탈리테 구축

제6호에서 제28호에 이르는 동안 『별건곤』은 특집기사 위주의 편집 체제를 보여주게 된다. 제6호부터는 취미란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레이아웃이 사라지고, 특정 주제의 기획들 안에 특집기사 형태로 기사들이 배치되거나 특정 제목을 가진 특집호가 제작된다. 최초의 특집호인 제8호(1927.8.) ‘大痛快號(대통쾌호)’를 시작으로, 『별건곤』의 전체 특집호 총 26개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특집기사 편집 체제기에 제작되었다.³¹⁾ 1929년에는 한 해 동안 발행된 전체 잡지가 특집호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집호의 유형은 ① 주제(총 8개),

31) 『별건곤』 특집호 전체의 목록과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1~14까지가 특집기사 편집 체제기에 발행된 특집호이다.

순번	권호(발행년월)	특집호 제목	특집호 유형
1	제8호(1927.8.)	大痛快號	① 주제
2	제10호(1927.12.)	創刊壹周年記念號	② 기념호
3	제11호(1928.2.)	新春特別號	③ 계절
4	제12,13호(1928.5.)	朝鮮사랑號	① 주제
5	제15호(1928.8.)	秘密爆開號	① 주제
6	제16, 17호(1928.12)	創刊二周年記念號	② 기념호
7	제18호(1929.1.)	新年號	③ 계절
8	제19호(1929.2.)	新春號 / 兩性問題號	계절 / ① 주제
9	제20호(1929.4.)	四月特輯號	③ 계절
10	제21호(1929.6.)	青春號	① 주제
11	제22호(1929.8.)	創社九周年紀念 / 奇人奇談號	기념호 / ① 주제
12	제23호(1929.9.)	京城號	① 주제
13	제24호(1929.12.)	創刊三周年紀念	② 기념호
14	제25호(1930.1.)	創社十周年 / 新年號	② 기념호 / 계절
15	제30호(1930.7.)	創社十周年記念號	② 기념호
16	제31호(1930.8.)	八月納涼號	③ 계절
17	제33호(1930.10.)	新秋特輯號	③ 계절
18	제34호(1930.11.)	‘4주년기념호’로 추정 (표지 훼손)	② 기념호
19	제36호(1931.1.)	新年號	③ 계절
20	제45호(1931.11.)	創刊第五週年記念號	② 기념호
21	제47호(1932.1.)	新年特大號	③ 계절
22	제57호(1932.11.)	創刊六週年記念號	② 기념호
23	제59호(1933.1.)	新年號	③ 계절
24	제69호(1934.1.)	新春特輯號	③ 계절
25	제70호(1934.2.)	讀物特輯號	① 주제
26	제72호(1934.4.)	陽春號	③ 계절

※ 제19호, 제22호, 제25호는 하나의 특집호 안에 두 개의 특집호 제목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기사의 내용 구성상 더 중요도가 있는 쪽으로 분류했다.

② (창간 혹은 창사) 기념호(총 8개), ③ 계절 특집호(총 10개)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집기사 편집 체제기(제6호~제28호) 동안의 특집호만을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① 주제 특집호(총 7개)이며, ② 기념호(총 4개), ③ 계절 특집호(총 3개)가 그 뒤를 따른다. 특집호 발행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편집 후기와 더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제 특집호의 편집 후기

“너름은 더웁고 지리한 때이니 넓기에도 힘이 안들고 속이 시원할 痛快한 이악이만 모으려고 連日 나리는 暴雨를 마르면서 애를 썼다. 그러나 實際에 取扱하고 보니 정말 痛快한 이악이는 掲載할 自由가 없어서 갑갑하였다. // 우리가 미리 빼인 것도 있고 삭제제를 당한 것도 있다. 그러나 요만큼이라도 모아 놓 수 있는 것을 독자는 趁찬해 줄줄 안다. 안해도 시비는 할 수 없지만.”

- 「編輯 後에」, 『별건곤』 제8호(대통쾌호), 1927.8., 172쪽.

위의 예문은 『별건곤』의 첫 번째 특집호인 ‘대통쾌호’에 등장하는 편집후기이다. 독자에게 ‘통쾌’라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특집호가 기획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통쾌는 표면적으로는 여름의 날씨를 이길 수 있는 가볍고 속 시원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검열에 저촉될 만한 것이어서 편집진의 원래 기획을 모두 게재할 수 없었다는 누락의 아쉬움이 전달되고 있다. 여기서의 통쾌가 사실은 조선 민족의 공통지식과 공통감각을 (재)구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듯, 『별건곤』에는 역사의 이면, 공식기록의 바깥, 그것들을 소재로 한 허구적인 이야기 등이 집단 기억을 조직하는 차원에서 빈번히 등장한다. 여기서 ‘조직과 사회의 이야기’인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 근대적 공론장 안으로 소환되어 일종의 공통감각을 조직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적 공론장에 소환되는 집단 기억은 모두에게 당연하게 존재하는 전통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집 가능한 공적, 사적인 다양한 기억이 만나고 경합을 벌여 선택되고 통제된 서사이다. 여기서는 승리뿐 아니라 패배도 기념하면서 억압된 역사를 결속의 근원으로 활용하게 된다.³²⁾ 더불어 『별건곤』은 이를 공통감각으로 구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별건곤』이 공론장에서 집단 기억을 구성하는 것은 취미와 실익잡지로 상식을 보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명한 상식(common sense)’, 지식의 (재)구성에는 감정과 공통감각(sensus communis)이 동반된다.³³⁾ 『별건곤』이 통쾌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 민족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집단기억을 상식으로 만들어 보급하면서, 여기에 통쾌의 감정까지 더하는 일이다.

통쾌호의 잡지 도입부에는 통쾌를 주제로 한 특집기사들 7개가 광고 형태로 강조되어 제시된다. 여기에서 광고되고 있는 특집 기획들로는, 1. ‘歷代陰險人物討罪錄’, 2. ‘夢見 李商在(論評)’, 3. ‘同胞救濟決死活動’, 4. ‘心膽俱爽各方面痛快談’, 5. ‘首陽大君亞細亞征服記’, 6. ‘特別三大痛快講談’, 7. ‘懸賞附男女大痛罵戰’이 있다. 이들 중 1. ‘역대음험인물토죄록’, 2. ‘몽견 이상재’, 5. ‘수양대군아세아정복기’, 6. ‘특별삼대통쾌강담’ 등은

32) 제프리 K. 윌릭(지), 강경이(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18-19, 288, 307-309쪽.

33) 나가무라 유지로(지), 양일모·고동호(역), 『공통감각론』, 민음사, 2003, 45-69쪽.

과거를 집단기억으로 (재)구성하는 특집 구획들이다. 그래서 역사상의 승리(수양대군아세아정복기, 특별삼대 통쾌강담)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물들에게 토죄나 반성하게 하는 이야기(역대음험인물토죄록, 몽견 이상재)를 등장시키면서 이를 매개로 민족의 집단적 정체성과 기억의 합일을 구현한다. 한편, 4. ‘심담 구상각방면통쾌담’은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겪은 통쾌 감정의 고백을 통해 공통감각을 구축한다. 여기에서는 당대의 유명 지식인에서부터 일반 인력거군에 이르기까지 스무 명의 필자가 통쾌한 경험담을 진술하고 있다. 개인적인 통쾌 경험을 작성해달라는 『별건곤』 편집진의 청탁에 대부분의 필자는 “이리말니고 저리 쫓기는 朝鮮사람의 처지에” “아직껏 통쾌을 늦긴 적이 별로 없고 압력으로 통쾌를 바라”(羅龍煥, 「甲己之年の 二大痛快」)고 있다는 비슷한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감정의 내면을 박팔양의 글(「적은痛快」)은 분석적으로 제시한다.³⁴⁾ 박팔양은 유쾌라는 표층적 감정과 통쾌라는 심층적 감정을 구분하는데, 식민지하에서 피압박층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유쾌일 뿐이며 진정한 통쾌가 아니다. 그럼에도 히스테리컬하게 반항하고 저항할 때 통쾌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별건곤』의 편집진이 통쾌호를 통해 구축하려 했던 민족적 공통감각, 카타르시스라 할 수 있다. 이 특집에 소속된 기사들은 피압박층의 카타르시스인 통쾌를 전달한다. 최남선에게 통쾌의 경험은 “朝鮮 고대에 『뱀』이라 하는 일대 원리”를 발견하여 조선의 문화와 역사의 원리를 알게 되었을 때이다(「내가 經驗한 第一痛快」). 한용운에게 통쾌란, 검열을 의식하여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3·1운동 당시 한민관에서 연설했던 일임을 알 수 있다(「내가 생각하는 痛快二三」³⁵⁾). 일본 유학생이었던 여기자 이현경에게 통쾌는 기차 안에서 조선 사람 험담하는 일본 남자를 때려준 일이다(「日本男子 싸려주고」). 또한, 3. ‘동포구제결사활동’과 7. ‘현상부남녀대통매전’ 특집을 통해서도 통쾌에 대한 동시대적인 상식과 감정이 공유된다. 전자는 당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민족 구성원들 간의 도움으로 해결한 일화들을 성취감과 더불어 전달하며, 후자는 당시의 신구(新舊) 남녀들을 둘러싼 사회적, 개인적 갈등들을 재치 있게 전달하며 웃음을 통해 통쾌의 감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처럼 자명한 상식의 지평을 공통감각과 더불어 조성하는 것은 ‘대통쾌호’뿐만 아니라 다른 특집호들에도 적용된다. ‘조선자랑호’(1928.5), ‘청춘호’(1929.6.), ‘기인기담호’(1929.8.), ‘경성호’(1929.9.)에서는 역사와 공간을 공유하는 조선 민족의 상식과 감각의 (재)구성을 의도한다. ‘비밀개곡호’(1928.8.), ‘양성문제호’(1929.2.)에서는 당대 조선 사회에 대한 세태 분석, 신지식 전달, 근대적 문제에 대한 갈등 해소 등을 통해 대중적 교양의 수준을 높이려 한다. 『별건곤』 특집호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몇몇 주제호를 민족주의적인 조선 표상 만들기로 평가한다.³⁶⁾ 그러나 이는 단순히 표상 만들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감

34) “피압박층의 일부분- 내지 一分子가 正規의 었던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발작적으로 「히스테리컬」하게 반항의 소리를 질르는 때가 있다. 또 불의의 압박에 대한 돌발적 폭행이 나러날 때가 있다. 소위 『義憤』에서 나러나는 행동! 그것은 아모에게라도 통쾌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 박팔양, 「적은痛快」, 『별건곤』 제8호(대통쾌호), 44쪽.

35) “내가 평생에 좀 통쾌한 일로는 년전 00館에서 연설하든 때 일이나 그것은 말할 것이 못되오!”

- 한용운, 「내가 생각하는 痛快二三」, 『별건곤』 제8호(대통쾌호), 40쪽.

36) 특집호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조선자랑호에 대한 연구(이에나가 유코, 「개벽과 별건곤을 통해 본 한국인의 자랑」, 『인문과학연구』 3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차혜영,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표상의 정치학, 개벽사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호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8,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와 경성호에 대한 연구(차혜영, 「개벽사

각의 차원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③ 계절 특집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는 제20호(1929.4)로 발행된 ‘四月特輯號’의 편집후기이다.

③ 계절 특집호의 편집 후기

“이번 호는 본래 3월을 標準하여 편집하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이 전혀 3월의 기분이 만다. 3월은 여러분도 잘 알으시는 바와 가티 方春和時 萬物更生하는 時期임으로 病者蘇, 死者生, 散者合, 其外 創建, 成功 등 갱생활약의 기사를 滿載해야 한 번만 읽으면 모든 落心이 春雪과 가티 다 살아지게 되었다. // 특히 朝鮮사람 된 우리로서는 누구나 한번씩 잘 읽어 주기를 바란다.”

- 「編輯室 落書」, 『별건곤』 제20호(사월특집호), 1929.4., 179쪽.

위의 예문은 민족적 공통감각이 보다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편집자 차상찬은 3, 4월과 관련한 계절적 배경을 “만물갱생하는 시기”로 규정하여 “병자소, 사자생, 산자합, 기외 창건, 성공 등 갱생활약의 기사를 만재”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낙심이 춘설과 가티 다 살아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별건곤』에서 봄이라는 계절은 소재의 차원을 넘어 ‘갱생활약’이라는 공통 감각으로 확장된다. 이에 관련된 특집 기획으로 ‘三月史上三大戰捷’과 ‘죽었다가살아난 新生命 絶處逢生’이 있다. ‘삼월사상삼대전첩’에서는 삼월과 관련한 역사적 승리의 사건들이 제시된다. 고려의 강감찬과 삼원수, 조선의 권율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들이 등장하며 일부는 검열로 인해 삭제된 흔적도 있다. 이는 주제 특집호에서의 집단 기억 만들기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죽었다가살아난 신생명 절처봉생’에는 중국혁명에서의 손문, 관동대지진에서 생존한 실화, 중종시대 장순손이 목숨을 건진 일, 병인양요 때 살아남은 일 등 과거와 당대의 역사적, 사회적 사건에서 구사일생한 이야기들이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대 식민지 조선에 환기하는 바가 명확하다. 그것은 식민지 현실의 극복과 재생에 대한 공통 감각의 부여이다. 다른 계절 특집호들에서도 해당 육십갑자 년도나 해당 월에 있었던 역사를 소환하거나,³⁷⁾ 계절과 연관되는 감각을 식민지 조선인들의 카타르시스와 연결하는 것³⁸⁾ 등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성 표상의 정치학, 『별건곤』 1929년 9월 대경성 특집호 연구, 『동학학보』 37, 동학학회, 2015.)가 있다.

대표적으로 차해영의 조선자랑호와 경성호 연구는 특집호 발행의 목적이 개벽사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표상 만들기임에 주목한다. 개벽사가 『개벽』(1925), 『별건곤』(1928), 『어린이』(1929)를 통해 발행한 일련의 자랑호들은 근대 세계적 보편질서와 더불어 조선 표상을 건설하는 것인 동시에, 1920년대 중후반 조선 사회의 상황에서 개벽사가 민족주의 부르주아 언론으로서 자기론을 주장하는 맥락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경성 특집호 역시 개벽사가 조선총독부의 조선 박람회에 대한 대항적 의미에서 자기 응시로서의 경성 표상을 구축하는 일환이었다고 분석한다.

37) 대표적으로 제18호(1929.1.) ‘新年號’와 제19호(1929.2.) ‘新春號’를 예로 들 수 있다.

제18호에는 ‘己巳新年史話’라는 특집 기획 안에 3개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과거 기사년에 있었던 주로 부정적 사건들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에 ‘새 正月에 생각나는 人物’이라는 특집 기획에서는 총 7명의 필자가 김옥균, 김홍집, 최수운, 황진이 등 긍정적인 고인들을 추억하는데, 이들이 ‘朝鮮心’을 자극하는 인물들이라는 데에서 집단 기억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제19호는 양성문제호와 겹쳐서 ‘新春號’로 기획되어 있는데, 제18호에 이어 ‘二月史話’ 특집이 이어지고 긍정적, 부정적 역사적 사건들을 의미화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38) 대표적으로 제11호(1928.2.)에는 ‘新春의 새 希望’이라는 특집 기획이 마련된다. 봄의 계절감을 조선인의 미래와 연결하는

② (창간 혹은 창사) 기념호는 다른 맥락에서 주목할 수 있다. 제24호(1929.12.)인 ‘創刊三周年紀念(창간 삼주년기념)’호를 예로 들 수 있다.

② 기념호의 편집 후기

“이번 號는 本誌創刊三週年紀念號兼하야 送年號로 特輯이기 때문에 前에업던 論文, 學術講座, 文藝 등을 特載한 外에 別乾坤式獨特의 記事를또 滿載하얏스니 實로 歲暮의 大讀物이될 價値가있는것이다 누구나 한번 재미있게읽어주시기만바란다.(朴돌이)”

- 「편집실낙서」, 『별건곤』 제24호(創刊三周年紀念), 1929.12., 126쪽.

박돌이(박달성)이 작성한 위의 편집후기에서는 기념호인 만큼 “전에 업던 논문, 학술강좌, 문예 등을” 특별히 게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해당호에 실린 특집 구획 ‘특별대부록’을 가리키는 것인데, 수록되어 있는 것은 논문, 시론, 소론, 연구 등의 장르 명칭을 가진 11개의 기사이다.³⁹⁾ 수록된 기사들에는 전문 분야의 지식에 대한 해설적 성격의 기사(「金解禁의 意義」, 「한글의 起源」, 「朝鮮歌詩의 苗咏」), 필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계몽적인 논설 형태의 기사(「個體生活과 團體生活」, 「日常生活의 意識的建築」, 「民族의 甦生과 體育」, 「朝鮮語辭典과 朝鮮人」), 각 방면의 상식을 풀이한 기사(「婦人法律上地位」, 「關西名物 金鳳伊」, 「端川豪傑 沈恭谷」, 「天下妖僧 라스푸친」) 등이 있다. 이는 『별건곤』의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심도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념호로 발간된 특집호들에서는 저널리즘 공론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특집들이 주로 기획된다. 『별건곤』의 잡지 매체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특집기사들이 등장하거나,⁴⁰⁾ 『별건곤』 혹은 개벽사의 역사와 더불어 조선 언론을 비롯한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한다.⁴¹⁾

특집으로, 7명의 필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 여성, 실업가 등을 호명하며 계몽적 논설로 책임감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다.

39) 제24호 ‘특별대부록’에 실린 기사들의 목록과 목차상 표기되어 있는 장르는 다음과 같다.

	기사 제목	필자	장르
1	個體生活과 團體生活	李敦化	論文
2	日常生活의 意識的建築	金起田	論文
3	金解禁의 意義	徐椿	時論
4	婦人法律上地位	李仁	小論
5	民族의 甦生과 體育	徐相天	小論
6	關西名物 金鳳伊	金振九	講談
7	端川豪傑 沈恭谷	沈浩然	史談
8	天下妖僧 라스푸친	翠雲生	○談 (원문 한자 불명확)
9	朝鮮語辭典과 朝鮮人	李克魯	講演
10	한글의 起源	金允經	研究
11	朝鮮歌詩의 苗咏	安自山	研究

40) 가장 처음으로 기념호 형태를 보여주었던 제10호(1927.12.) ‘創刊壹周年紀念號’에서는 ‘本誌에 對한 批評과 希望’이라는 특집 구획이 마련되는데, 이상협, 최남선 등 주로 지식인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여 『별건곤』의 세련된 편집 체제와 대중잡지로서의 정체성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41) 대표적으로 개벽사 창사 10주년에는 제25호(1930.1)와 제30호(1930.7.) 두 번에 걸쳐 기념호가 발행된다.

출판지법의 허가 아래 발간되던 잡지여서 정치시사 논의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별건곤』이었다. 그러나 논문 형태의 공론적 기사가 등장하는 것이 근대적 종합잡지의 성격이었고, 이러한 특집호에서의 기사가 잠재태가 되어 다음 시기 종합잡지 편집 체제기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별건곤』의 특집호들은 결국 식민지 조선인들의 신념, 감정, 심리 상태 등 지적이며 감성적인 차원을 두루 포괄하는, 일종의 망탈리테(mantality)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망탈리테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세계를 느끼고, 살고, 행동하는 집합적 비의식의 일상 형태를 말하며, 집합적 및 사회적 심리 상태의 공통적 내용을 범위로, 지각, 가성, 태도, 신념, 신앙, 사고방식, 감정, 심리 상태 등 지적·감성적 차원의 내용을 두루 포괄한다.⁴²⁾ 따라서 『별건곤』이 새로운 서사 양식을 통해 집단적 주체의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공론장에서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행위주체의 실천성을 조직⁴³⁾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IV. 종합잡지 편집 체제 도입기(제29호~제37호, 1930.6.~1931.2.)

- 지식인 공론장의 대행과 대중적 공론장의 체계화

『별건곤』은 ‘창간3주년기념호’였던 제24호(1929.12.)부터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기념호 명목으로 등장한 논문과 시사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계속 특집 형태로 게재되며, 잡지의 후반부에는 문예란을 재편성하기 시작한다. 또한 제25호(1930.1.1.)부터는 최초로 ‘권두언’을 수록하는데 이는 『별건곤』의 최종 발행까지 이어진다.⁴⁴⁾ 편집 체제의 전환이 완전히 명시되는 것은 제29호(1930.6.)부터이다. 제29호의 「特告」에는 해당 호부터 “정치, 경제에 관한 문제를 게재”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향후 이와 관련된 “논문, 평

제25호는 ‘新年號’를 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개벽사와 더불어 조선의 최근 10년간을 되돌아보는 기획들이 마련된다. 특집 기획인 ‘最近十年間 朝鮮의 變遷’에서는 교육계, 독서계, 공업계, 종교계의 대표자들 7명이 각자의 분야에서 조선의 10년간을 회고한다. 또한 단독 기사인 ‘最近十年間 話頭에 오른 世界 新人物’, 「十年間 朝鮮의 土地及人口移動」, 「十年後 流行豫想」 등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제30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진다(제30호는 종합잡지 체제기에 발행되어 종합잡지적 면모도 갖추고 있다.). ‘記念錄’이라는 머리기사 특집 기획을 마련하여 관련 편집자와 필진들이 개벽사의 연보를 정리하면서 십년간을 회고한다. 특히 개별 기사로 수록된 壽春學人의 「朝鮮新聞雜誌發達史」에서는 조선후기부터 조선의 신문잡지 발달사를 서양의 경우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일합병, 문화정치 등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연재로 기획된 이 기사는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創社十年紀念特別大附錄’이라는 이름으로 100쪽부터는 별도로 구분하여 문예 및 각종 잡문류의 글을 수록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42) 김영범은 망탈리테 개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압축시켜 설명한다. “첫째,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강조, 둘째, 대중적 - 민중적인 것에 대한 강조, 셋째, 감성의 중시, 넷째, 심층성, 다섯째, 장기 지속성. 그리고,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면서 또한 서로를 보강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망탈리테라는 것이다(김영범, 「망탈리테사: 심층사의 한 지평」, 『사회와 역사』 31, 한국사회사학회, 1991, 267~268, 271쪽.).

43) 찰스 테일러, 앞의 책, 259~271쪽.

44) 제25호 이후 권두언이 부재하는 호는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29호(1930.6.)가 유일하다. 그러나 제29호의 경우에도 머리기사 직후에 「特告」가 등장하여 잡지 편집 체제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 이외에는 수필, 시, 그림, 만화의 형태라든가 권두언이 수록되어 있다.

론 기타 옥고”를 투고해 줄 것을 독자에게 요청한다.⁴⁵⁾ 그리하여 이 시기 잡지 전체의 레이아웃은 ‘권두언 - 정치사사 기사 - 별건곤식 취미 · 실용 기사 - 문예’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른바 ‘종합잡지’ 형태의 레이아웃이 나타나는 것이다.

종합잡지는 근대적 저널리즘 공론장 구현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비록 식민지 조선의 저널리즘 공론장은 일그러진 모습이었지만, 동시대 일본의 저널리즘에는 종합잡지의 체제가 온전히 구현되어 있기에 참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도 즐겨보았던 월간지 『中央公論(중앙공론)』⁴⁶⁾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도 일본의 대표적인 시사 종합잡지인 『중앙공론』은 다이쇼(大正) 시기(1912.7.30.~1926.12.25.)에 종합잡지,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총합잡지(總合雜誌)’ 형식의 전형을 완성했다고 평가된다. 현재의 종합잡지가 가벼운 평론이나 보도 기사 위주의 구성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중앙공론』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종합잡지는 ‘공론(公論)/논문(論文) - 중간독물(中間読物) - 문예(文藝)/창작(創作)’의 세 개의 기둥(本体)이 균형을 이루었다.⁴⁷⁾ 각각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논문/공론’ 영역에서는 주로 정치, 경제, 외교, 사상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사회 문제나 문화, 예술 방면의 주요 논문들도 수록되었다. 필진들은 대부분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학자들로, 문자 그대로 논문의 방식으로 각 분야의 문제들이 공론화 되었다. 이후 등장하는 ‘중간독물’이란 권두(卷頭)의 논문과 권말(卷末)의 창작 사이에 수록된 중간(中間)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간층 독자의 지지를 받아 다이쇼기 종합잡지의 대중화에 기여했기에 중간계급문화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⁴⁸⁾ 중간독물은 공론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중간독자층의 성격에 맞추어 평이한 논평이나 에세이의 형태를 보여주며, 단순히 오락이나 흥미,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질문들도 중간독물 영역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예’란에는 각 장르의 문예창작 작품들이 등장했는데, 다이쇼 시기의 『중앙공론』에는 당대 대표 작가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사토 하루오(佐藤春夫) 등이 주로 작품을 발표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중앙공론』 문예란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⁴⁹⁾

45) “이번號부터 本誌에도 特히 政治, 經濟에 關한 問題를 掲載하게되었사오니 讀者여러분은 다가타깃버하여 주시고 此에 關한 論文, 評論 其他玉稿를 만히 써서보내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 編輯者”

- 「特告」, 『별건곤』 제29호(1930.6.), 13쪽.

46) 『중앙공론』은 1887년(메이지 20년) 불교계의 자성과 쇄신을 위해 만들어진 『반성회잡지(反省會雜誌)』를 전신으로 1889년 ‘중앙공론(中央公論)’으로 개명했다. 다이쇼기의 『중앙공론』은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 민본주의) 논의의 대표적인 공론장이었고, 편집 체제의 측면으로는 종합잡지(總合雜誌)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잡지로 평가된다(淺海保, 『中央公論新報120年史』, 中央公論新社, 2010, 17쪽; 青地晨, 「中間文化の意味」, 『中央公論』 90: 11(1064), 1975.11. 311쪽.).

47) 『중앙공론』의 종합잡지의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평론 - 중간독물 - 소설’로 구분하거나(青地晨, 「中間文化の意味」, 『中央公論』 90: 11(1064), 1975.11. 311쪽.), 잡지 구획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론(公論) - 설원(說苑) - 창작(創作)’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다(淺海保, 『中央公論新報120年史』, 中央公論新社, 2010, 40쪽.). 한편 중간독물을 세분하여 문화나 문예에 관련된 설원(說苑)과 시사에 관련된 시론(時論)으로 구분하여, ‘공론 - 설원 - 시론 - 창작’으로 사분(四分)하기도 한다(近藤信行, 「滝田樗陰とその時代」, 『中央公論文芸欄の大正』, 中央公論新社, 2006, 528쪽.). 본 연구에서는 중앙공론사 편집진의 분류를 참고하고(『中央公論九十年にみる 世相読物傑作選』, 『中央公論』 90: 11(1064), 1975.11., 310쪽.), 식민지 조선 저널리즘의 정치시사적인 논의가 가지는 공론성과 『별건곤』의 명칭을 고려하여 종합잡지의 형식을 ‘공론 - 중간독물 - 문예’로 삼분한다.

48) 前田愛, 「「中間」は曲物である」, 『中央公論』 90: 11(1064), 1975.11. 312쪽.



〈그림 2〉『별건곤』 제33호(1930.10.) 목차(순서 : 우 → 좌)

종합잡지 편집 체제가 적용된 『별건곤』의 레이아웃은 ‘권두언-공론-중간독물-문예’로 체계를 갖추었으며, 대표적으로 제33호(1930.10.)를 예로 들 수 있다.⁵⁰⁾

49) 浅海保, 앞의 책, 46~47쪽.

50) 제33호에 수록된 특집 구획/기사들의 목록과 유형을 종합잡지 식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특집 구획명’ / ‘기사명’	기사 유형
卷頭言 - 「盜防法의 實施」	권두언
‘時事와 評論’ (9개 기사 수록)	공론
‘大邱行進曲’ (9개 기사 수록)	중간독물 (시론, 설원)
「朝鮮各地 各地 各勝 丹楓巡禮」	중간독물 (설원)
‘教育問題’ (2개 기사, 7명 필자)	중간독물 (시론)
‘안해의 欠’ (4명 필자) ‘남편의 欠’ (4명 필자)	중간독물 (설원)
‘世界各國 首相 의 푸로엘’ (5개 기사)	중간독물 (시론)
「新郎 候補者 展覽會」	중간독물 (설원)
‘中國內亂實話’ (2개 기사)	중간독물 (시론)
「骨想學上으로 본 朝鮮役軍의 얼굴」	중간독물 (시론)
‘自由結婚한 그 女子가 왜 시집사리를 못하였나?’ (3명 필자)	중간독물 (설원)
「名士諸氏와의 一問一答記」	중간독물 (설원)
「誌上公開 暴利大取締」	중간독물 (시론)
「演壇珍話」	중간독물 (설원)
‘文藝’ (5개 기사)	문예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 『별건곤』은 목차 구성 레이아웃의 시각적으로도 종합잡지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제33호의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도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권두언’의 제목은 「盜防法の 實施」로 전월부터 시행되었던 도난방지법을 비난한다. 대구의 한 일본인이 조선인 소년을 해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판정을 받게 된 데 대한 실례를 들어가며 새로운 법령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뒤이어 등장하는 것은 ‘시사와 논평’이라는 제목을 단 특집 기획 안의 총 9개의 기사인데, 이는 종합잡지의 레이아웃상에서 ‘공론’ 역할을 하는 기사들의 기획에 해당한다. 전반부에는 조선 국내 정세에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고, 후반부에는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국제 정세에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다. 국내 기사는 주로 당시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서 식민 현실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다.⁵¹⁾ 특히 권두언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던 도난방지법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해설(「盜難防止법의 解説」)이 등장하는 것이 종합잡지에서의 논제 설정을 보여준다. 한편 국제 정세를 다룬 기사들에서는 당시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일어났던 사회주의 운동⁵²⁾과 필리핀의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문제를 다룬 기사⁵³⁾가 실려 있다. 특히 러시아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기사인 「露西亞는 어디로 가나?」는 일본의 시사종합잡지인 『改造』 1930년 9월호에 수록되었던 오오타케 히로키치(大竹博吉)의 글(원제: 「ロシアは何年後に共產制社會を實現する?」)을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시사와 논평’ 기획에 실려 있는 기사들은 국내외의 식민 현실과 사회주의 열풍이라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의 논의를 보여주는 종합잡지 형태의 저널리즘 공론장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별건곤』의 공론 유형 기사들은 대중성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해당 기사들에는 “학술적을 떠나서 일반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속적으로 쓰라는 (편집진의) 부탁”⁵⁴⁾이 언급되며 “법률가가 아닌 독자 제씨에게” “평이하고 간단하게” “통속적으로 설명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이 강조된다.⁵⁵⁾ 『별건곤』이 초창기부터

‘특집 기획명’ / 「기사명」	기사 유형
‘六號室’ (8개 기사)	중간독물 (설원)
「十月新懸賞募集」	광고

※ 중간독물은 『중앙공론』의 경우처럼, 시사에 관련된 시론(時論)과, 문화나 문예에 관련된 설원(說苑)으로 분류했다.

51) 「朝鮮 經濟界 概觀」(申泰翊)에서는 조선의 경제가 조선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일제 강점의 현실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며, 「平壤 고무工場 爭議 戰跡」(吳基永)에서는 노동쟁의를 다루고 있다.

52) 金世鎔, 「中國共產黨論」; 朱耀翰, 「十日天下 中國의 北方政府」; 一記者, 「露西亞는 어디로 가나?」

53) 李學仲, 「比島獨立運動과 米國」

54) “朝鮮 經濟界 즉 朝鮮 사람의 경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 어떠한 원동력 밑에서 이 경제계가 변천이 되어가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절실히 있다. 이것을 말하랴 함에 있어서 먼저 嗟嘆이 압홀스다. 또 붓대가 맘대로 돌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맘대로 붓대를 놀인다면 경제계의 현상을 말하는 한계를 버서나 달은 방면으로 달아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탈선을 경계하면서 쓴 것이다. 그러고 『學術的』을 떠나서 일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通俗的』으로 쓰라는 부탁인 때문에 더욱 완전을 기대 못하게 된 점을 늘너보아 주기를 바란다.”

- 申泰翊, 「朝鮮 經濟界 概觀」, 『별건곤』 제33호, 2쪽.

55) “그러나 본 해설은 법률가가 아닌 讀者 諸氏에게 그 대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필자의 연구가 淺薄한 연고로 학설이라든지 비평은 업고 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평이하고 간단하게 法文에 나타난 의의를 그대로 通俗的으로 설명 소개함에 불과한 것이니 이 점에 대하여 讀者 諸氏의 諒察을 乞한다.”

- 楊潤植, 「도난방지법의 해설」, 『별건곤』 제33호, 8쪽.

설정한 민중성, 대중성을 잃지 않으면서 공론장을 조직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중간독물’ 유형의 기사들은 정치시사적인 쟁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론 형태의 기사들과, 원래 별건곤이 추구하던 문예나 단순한 오락거리로 읽을 수 있는 잡문들 즉 설원 형태의 기사들로 구분될 수 있다. 설원 형태의 기사들이 본래 『별건곤』이 전개해 오던 취미, 실용, 오락 목적의 ‘별건곤식’ 기사들이라면, 시론 형태의 기사들은 공론 유형의 도입과 더불어 정치시사와 관련된 가벼운 독물들을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⁵⁶⁾ 특히 분량과 중요도 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집 기획인 ‘대구행진곡’은 권두언의 대구 소년의 사례와도 연결되면서 시론과 설원 유형의 기사 모두를 포괄한다. 이는 일종의 연재기획으로 이 시기 『별건곤』에는 ‘평양행진곡’(제32호), ‘개성행진곡’(제34호) 등이 연달아 게재된다.⁵⁷⁾

‘문예’란에는 채만식의 희곡 한 편(『밥』), 연재 번역 탐정소설 한 편(랜돈, 『凶家の 秘密』), 시 세 편(로아, 『가을들에서』, 『南大門』; 李裕宿, 『벗생각』)이 수록되어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잡지의 문예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미 『개벽』은 1920년대 초중반 현상문예와 독자투고란, 비평 등을 통해 소설 장르와 신 경향파 문학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학 발전에 공헌한 바 있다.⁵⁸⁾ 『별건곤』은 잡지의 표면적 특성상 ‘취미독물’ 중심의 대중적 서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⁵⁹⁾ 취미독물을 애호하는 독자들의 성향으로 순수소설이 간헐적으로만 등장하다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⁶⁰⁾ 그러나 이 시기 『별건곤』에 순수 문예가 재수록 된 데에는 종합잡지 편집 체제와도 관련이 있다. 제24호(1929.12.)부터 제35호(1930.12.) 사이, 『별건곤』은 개벽사의 종합잡지 역할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후 곧 『해성』(1931.4.)이 창간되어 『별건곤』에 투고하던 이태준, 염상섭, 채만식, 김동인 등이 『해성』에 작품을 수록하고, 『별건곤』의 편집 체제가 다시 한번 변하면서 문예란이 사라지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리하여 이 지점에서 개벽사 내에서 『별건곤』이 담당해야 했던, 종합잡지 체제로 편성되어야 했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별건곤』이 창간된 때(1926.11.)는 검열에 의해 중단과 속간을 반복하던 『개벽』이 폐간(1926.8.)된 직후였고, 『신여성』(1923.9.~1926.10, 1931.1.~1934.4.)도 『별건곤』의 창간과 동시에 1926년 11월부터 휴간되어 1931년 1월에야 다시 속간될 수 있었다. 『별건곤』과 당시 발행되었던 것은 『어린이』(1923.3.~1934.7.)가 유일했으며, 『학생』(1929.3.~1930.1.)이 잠시 등장했고, 『개벽』을 이은 종합잡지 『해성』(1931.4.~1932.4.)과 『제일선』(1932.5.~1933.3.), 대중경제잡지 『신경제』(1932.6.~1932.8.)가 『별건곤』 후반기에 일시 발행되었다. 즉 『별건곤』은 당시 개벽사의 주력 잡지였고, 취미·실익의 정체성

56) 대표적인 시론 유형의 특집으로 ‘교육문제’와 ‘세계 각국 수상의 프로필’이 있다. 전자는 식민지 조선의 중등교육과 실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후자는 이 시기 국외 정치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하게 된 중간독물로, 스탈린, 무솔리니 등 당대 해외 유명 지도자들의 공적, 사적인 면모들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57) 제23호(1929.9.)로 발행된 경성호의 연장선상에서 일 년 만에 재개된 제32호의 ‘평양 행진곡’에 이어 제33호에는 ‘대구행진곡’이, 제34호에는 ‘개성행진곡’이 이어진다.

58) 최수일, 『『개벽』의 ‘현상문예’와 ‘신경향파문학’』,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전은경, 「20년대 독자들의 “쓰기” 욕망과 개벽의 〈독자란〉」, 『현대소설연구』 39, 현대소설학회, 2008; 김도경, 「1920년대 전반 비평에 나타난 소설 개념의 재정립 - 『개벽』과 『조선문단』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3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59) 이정돈, 『『別乾坤』과 近代 趣味讀物』,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60) 김경미, 『『별건곤』의 순수 ‘소설’과 ‘취미독물’의 상관성 연구』, 『어문학』 135, 한국어문학회, 2017.

을 표방하면서도 폐간되거나 휴간된 다른 잡지들을 일부 대행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별건곤』은 지면을 통해 이를 종종 언급한다. 제2호의 사고(社告)⁶¹⁾에는 『신여성』의 휴간을 알리며, 서로의 내용에 저촉되는 점은 많지만 당분간 『별건곤』과 『신여성』이 합본 형태를 취할 것임이 언급된다. 이에 실제로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별건곤』에 ‘여성란’이 등장한다. 또한 제30호(1930.7.)인 ‘창사 10주년 기념호’의 ‘권두사’에는 『개벽』 시대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별건곤』이 『개벽』의 열렬한 정신과 기세를 이어가는 잡지임이 역설된다.⁶²⁾ 이러한 『별건곤』의 대행적 역할이 종합잡지 체제의 형식을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잡지 『별건곤』이 종합잡지의 편집 체제를 취하면서 선취한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앙공론』의 경우, 종합잡지 양식의 정착은 다이쇼기의 민본주의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하나의 잡지 안에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다양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양상을 만들게 된다. 공론란은 당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논의를 주도했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하세가와 노제칸(長谷川如是閑) 등의 정치 전문가들이 모여 당대 각 사회운동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했다. 중간독물란은 각종 특집 기사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나름의 공론장을 형성했다. 특히 『중앙공론』 294호(1913.9.)였던 ‘부인문제호(婦人問題號)’의 논의가 계기가 되어 여성 전문 잡지 『婦人公論』이 창간(1916)⁶³⁾되기도 하는 등 종합잡지는 다양한 공론장 조직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문예란 역시 앞서 지적한 바 있듯, 당대의 문학인들이 활동하는 문예공론장이었다.

따라서 『별건곤』이 종합잡지 편집 체제를 도입하면서 갖게 된 의의는, 대중적 공론장이 지식인 공론장을 대행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중적, 대중적 공론장의 논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벽사에서 일련의 종합잡지들이 출간되고 나서도 『별건곤』은 계속해서 정치시사 논의를 이어가며, 잡지의 체제 역시 종합잡지 형태를 바탕으로 중간독물을 보다 계층화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1929년 창간되어 식민지 시기 가장 오래 발행되었던 대중잡지인 『삼천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집체제이다. 이것이 『별건곤』이 종합잡지 편집 체제를 통해 얻게 된 것이며, 이는 『별건곤』이 중간독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다음의 시기에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61) “그러나 신여성조차 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용기사가 별건곤과 서로 저촉되는 점이 많음으로 당분간, 신여성을 休刊케 하고 별건곤에 합하여 특별히 여자에 관한 기사를 만히 취급하여 신여성 1권의 내용을 넉넉히 포함할 만큼 편집하기로 하엿사오니 종래의 신여성 독자도 落望치 마시고 본지를 애독하여 주시며 다시 개벽 후신의 신잡지와 함께 신여성의 續刊케 될 날을 기다려주시기 간절히 바라나이다.”

- 「社告」, 『별건곤』 제2호, 1927.12., 11쪽.

62) “『開闢』은 沒하였스되 그의 빛나는 精神은 살아잇스며 그의 끼찬바 기름진 기름은 남아잇다.…(중략)…이 熱熱한 氣勢는 未久에 發行될 新雜誌와 現在의 別乾坤, 學生, 어린이의 四大誌를 中心으로 二十萬 讀者의 絶對 支持 하에 十大新計劃이 着着 進行되는 것으로써 넉넉히 立證하고 남는 바이다.”

- 「권두사」, 『별건곤』 제30호, 1930.7., 1쪽.

63) 近藤信行, 앞의 책, 529쪽.

V. 중간독물 중심의 대중적 종합잡지 편집 체제기(제38호~제73호, 1931.3.~1934.6.)

- 대중적 공론장의 다변화 전략

『별건곤』은 발행 후반기에 잡지 가격 변동과 더불어 편집 체제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이전까지는 50전으로 발행하던 잡지를 제38호(1931.3.)부터는 파격적으로 5전으로 인하했고, 제52호(1932.6.)부터는 다시 10전으로 인상하여 발행했다. 5전 잡지로 전환한 제38호의 「권두언」에는 『개벽』의 후신인 『해성』의 창간(1931.4.)으로 이제 『별건곤』이 “아초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별건곤』 애초의 목적이란, 민중의 문맹퇴치와 독서욕 증진으로, 『별건곤』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책들로 독서의 범위가 확장되고 지식과 학문이 일반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계발의 새로운 방안을 개척”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잡지 가격을 5전으로 인하한다는 공지를 전달한다.⁶⁴⁾ 『별건곤』이 과거 50전 잡지 시기에 담당해야 했던 대행정 기능과 이후 정체성 구성의 목표가 확실해지는 부분이다. 한편 제52호부터 잡지의 가격을 10전으로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개벽사의 사정과 독자의 요구가 있었음이 편집후기를 통해 공지된다. 10전으로의 가격 인상은 『해성』이 『제일선』으로 제목과 편집 체제를 전환(1932.5.)한 직후이자 『신경제』 창간(1932.6.)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표지를 프로세스판으로 바꾸고 광고를 줄이며 분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리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독자의 요구를 반영한 사항이다.⁶⁵⁾ 이렇게 본래의 민중적, 대중적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된 『별건곤』은 중간독물이 중심이 된 대중적 종합잡지의 편집 체제를 보여주게 된다. 5전 잡지 시기와 10전 잡지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5전 잡지 시기가 ‘공론-중간독물’의 이원적 구성을 보여준다면, 10전 잡지 시기에는 ‘공론-중간독물-대중문예’의 삼원적 구성이 나타난다.

64) “책 안이 보는 사람, 글줄과 친하지 않는 민중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친하게 하면서 문맹퇴치의 옷 속에서 民衆啓發의 새로운 방안을 開拓하자는 데에 한뜻이 있는 것이라. 이것으로써 친해 가지고 독서욕이 증진되고 또 향상하여 이것만으로 부족을 느끼게 되면 慧星. 신여성. 어린이. 농민 기타의 모든 잡지와 서책을 아울러 넓게 될 것을 굳게 굳게 믿노니 이리함으로 써 朝鮮에 필요한 모든 학술과 예술 기타 萬般智識과 議論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그릇된 머슴이 안이라 할진대 친하의 뜻있는 동무는 이 5전 잡지의 100만부 期에 스스로 성원을 갖가지 안이 할 것을 또한 굳게 믿는다. // 別乾坤 아초의 목적이 실로 여기 있섰든 것이다. 開闢誌가 발행금지로 沒하게 됨으로 不得已 五十錢誌가 되엿든 것은 임시경리상 사정에 의한 變態이엿섯던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래의 계획에 도라오게 된 것은 이제 「慧星」誌(別頁廣告參照)가 실로 慧星과 가터 돌연히 나타나게 된 까닭임을 고평하며 신잡지 「慧星」과 함께 신출발이 別乾坤에 만흔 聲援을 나리어 멀지않은 100만부 돌파의 날을 가터 깃버하기를 바란다.”

- 「권두언」, 『별건곤』 제38호, 1931.3., 3쪽.

65) “『별건곤』을 가을월부터 10전으로 올리자든 것이 독자 제씨로부터 하로라도 더 속히 실현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빗발치듯 하여서 우리는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이달부터 단연히 시작하기로 하였다. 본사에서 해성이 「第一線」으로 개제되는 동시에 재래의 편중체제를 전부 뜯고치게 되었고, 「新經濟」라는 새 잡지가 또 하나 생겨나게 되어 눈코 뜰새 업시 복작어릴 판에 갑자기 10전 단행의 준비를 하느라고 10전의 면목이 나섰는지 안나섰는지 독자 제씨는 조금도 거침업시 의견과 편달을 던져주기를 바란다. // 먼저, 표지가 전과 달리 프로세스판이 되었고 페이지가 곱시나 늘게 됨으로써 광고가 너모만 어 눈에 거슬린다든 불평도 업서질만큼 되고 내용체제에 있어서도 전보다는 너그럽게 된 것이 전과 다른 특색이다. 그리고 원래 「별건곤」으로 말하면 가튼 「46배판」이면서도 일반 46배판에 비하여 좀 면이 넓고 기사도 약 2, 3할 가량 더 실릴 수 있다. 이것은 한 기사라도 더 만히 실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도 별건곤의 한 가지 특색이다.”

- 「몽당鉛筆」, 『별건곤』 제52호(1932.6.), 60쪽.

1. ‘공론-중간독물’의 이원적 구성(제38호~제51호, 1931.3.~1932.5.)

5전 잡지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면 분량이 1/5가량으로 대폭 축소되면서⁶⁶⁾ 전체적으로 기사의 수와 각 기사의 길이가 줄어들고 내용 역시 간략하고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공론 유형의 기사들이 축소되었지만 정치시사 논의들이 이어져 공론장 기능은 유지되며, 문예란이 사라진 대신 중간독물의 비중이 확대된다. 이는 각주의 정리된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50전 잡지의 마지막 발행호인 제37호와 5전 잡지의 시작인 제38호를 비교대조해 볼 때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⁶⁷⁾



〈그림 3〉『별건곤』 제37호(1931.2.) 목차(순서: 우→좌)

- 66) 제1호에서 제37호까지 『별건곤』의 분량이 154~182면 정도였다면, 5전 잡지 시기인 제38호에서 제51호까지는 30~36면 사이로 발행되었다(김은규, 앞의 논문, 22~25쪽.).
- 67) 특집 기획/기사를 중심으로 제37호와 제38호의 기사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순서는 기본적으로 목차지를 따르되, 양자의 비교대조를 위하여 변경한 부분도 일부 있다.

제37호(1931.2.) ‘특집 기획명’ / ‘기사명’	기사 유형	제38호(1931.3.) ‘특집 기획명’ / ‘기사명’
		「表紙寫眞」 「近代人物寫眞集」 「民間大建物畫報」
「卷頭言」	卷頭言	「卷頭言」
「新幹會 解消論 贊否 批判」(16명 필자)	공론	「新幹會는 잊더케되나」 「各學校 內容을 地方 父兄에게」
「比島獨立運動」		
「中國赤色共產黨」		「물건값은 왜 썰러지나」
「獨逸革命과 에베르트」		
「不景氣繼續과 濱口內閣運命」		「世界大勢이야기」
「在滿百萬同胞을 위하야 中國國民政府에 抗議함」		
「兩載 未解決의 三大問題」(3개 기사)		
「天道教 新舊派 南北 監理敎」(2개 기사)		
「京仁取引所合同問題批判」		

‘공론’ 유형 기사들은 5전 잡지 전환 이후 연재 형태로 종합잡지 체제를 이어나간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된 제37호와 제38호를 발행하던 당시에는 신간회 해소에 대한 논의가 주요 논제였는데, 이를 공론화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50전 잡지였던 제37호의 특집 ‘新幹會 解消論 贊否 批判’은 신간회 존폐와 관련하여 16명의 필자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종합잡지식 저널리즘 공론장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5전 잡지로의 전환 이후 분량과 성격상 이를 동시에 다루지 못하자 연속 기사의 형태로 논의를 이어나간다. 제38호의 「新幹會는 엇더케 될까」(金俊模), 제39호의 「今後民族的 協同戰線(본문 제목: 新幹會 解消後의 民族的 協同戰線을 엇질가)」(金致鉦), 제41호의 「新幹會 解消後의 大衆運動은 엇케될가」(朴君植)가 이에 해당한다. 제38호에 실린 김준모의 글은 신간회가 해소 이전에 이미 투쟁능력을 상실했음을 말한다.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아 제39호의 필자 김치옥은 신간회가 실패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이후 농민, 노동자, 종교단체가 연합하여 대중적으로 민족적 협동전선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제41호에 실린 박군식의 글은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의 기사로, 앞선 필자들의 맥락에서 대중 각계각층이 직접 현실투쟁 운동에 나서는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공론란의 예로, 국의 정세에 대해서는 주로 漢陽學人이 게재했던 연재기사 「世界大勢 이야기」가 있는데, 종합잡지 편집 시기 두세 편씩 실리던 국외의 정치시사 관련 기사들을 축약해 놓은 형태이다. 또한, 필자 서훈이 기자와 좌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제 관련

제37호(1931.2.) ‘특집 기획명’ / ‘기사명’	기사 유형	제38호(1931.3.) ‘특집 기획명’ / ‘기사명’
「速히 改新할 大家族制度」 ‘第一먼저 窺칠 朝鮮人의 缺點’ (8개 기사) ‘世界各民族의 가장 큰 長點’ (6개 기사) 「就職의 前哨戰 就職戰線 異常있다」 「誌上工場」 「카자린 二世秘話」 「내가 본 내 얼굴」 「不老長生術」 「新懸賞問題 發表」 「모던 福德房」 「時相漫畫」 「一問一答記」 「한울남전上書」 「閩羅國 審判 傍聽記」 「羅馬法王會見記」 ‘난센스 實話集’ ‘任氏門中 四角戀愛’ (2개 기사) ‘六號室’ (9개 기사) ‘文藝’ (7개 기사) 「誌上 全鮮 學生 雄辯大會 豫選發表」	중간독물	잡 學校 안보내겟소 女子만 사는 세상 조선안의 이싸흠 저싸흠 名土怪行習 ‘六號特輯’ (4개 기사) 「民國談草(漫談)」 「美少年錄(野談)」 「肉體의 〇異」 「生命定價表」 「安昌男은 참말살았나」 「안장자기가 新家庭사라」 「曲馬團 女王 金錦仙 哀話」 「三百美女裸體亂舞 (事實)」 「寒食祭이야기」
	문예	(없음)
	광고	壹百名大懸賞問題



第六卷 第三號目次	
表紙寫眞：裴龜子一行四首陽樓	一三
◇近代人物寫真集	一三
◇民間大建物圖報	九
卷頭 言	一
新幹會는 어디까지나	金復權 四
各學校內容論地方父兄列	車相環 二
물건값은 왜 싸러지나	徐 椿 六
學學校안보내갓소	方定機 一〇
世界大勢이야기	浩鏡堂 八
女子만사는세상	蘇眠鏡 一四
조선안의이차종커차종	一記者 一七
名士怪行圖	萬顯鏡 一七
容案妙答	一八
警風錄	二
고무風熱	七
一問一答	九
經濟의始初	一九
民國談草(漫談)	尹白南 三
美少年錄(野談)	金煥九 三二
肉體의驚異	北院生 八
生命定價表	鐵 幕 三
安昌男은참말살었나	一記者 六
안창자가가본新家庭사리崔姓女	元
曲馬團女王金錦仙哀話	李泰運 六
三百美女操體亂舞(事實)	石南生 三
寒食祭의이야기	靑梧生 三
奎百名大體贊問題	三

〈그림 4〉『별건곤』 제38호(1931.3.) 목차 면과 목차 부분 확대

연재 기사도 공론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연재는 「물건값은 왜 싸러지나」(제38호)를 시작으로 「조선 사람은 왜 가난해지나」(제39호), 「참혹히 찢어진 곳치갑 금년 춘견일원팔십전」(제40호), 「돈·돈·돈이야기」(제41호)로 이어진다. 근대적 경제의 법칙과 문제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편, 5전 잡지 시기로 전환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중간독물’이 편집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5전 잡지 시기는 시각적으로 간략해진 편집 체계가 특징적이다. 〈그림 3〉에 나타난 50전 잡지의 종합잡지 편집 체계가 글자의 크기와 실선 등을 통해 공론-중간독물-문예의

중요도와 강조점을 계층적으로 분류한 형태를 보인다면, 〈그림 4〉의 경우는 시각적으로 기사들의 유형과 위계를 거의 알 수 없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일하게 가로로 쓰인 ‘六號特輯’과, 다소 글자의 크기가 큰 기사 「쌀 學校 안보내겟소」, 「安昌男은 참말살었나」 등이다. 이들은 모두 중간독물 유형에 속하는 기사들로, 특히 본래 짧게는 1/2단에서 1면 내외의 짧은 글 모음이었던 ‘육호특집’이 전면에서 부각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그림 3〉의 원편처럼, 종합잡지 체제에서는 ‘六號室’이라는 이름으로 문예란 하단에 작게 자리하고 있다). 육호실, 육호특집 등으로 명명되는 이 구획은 개벽사 특유의 단형서사란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별건곤』 내에서 육호특집은 몇 차례 이름을 바꾼다. 『별건곤』에 이것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제31호(1930.8.)이며 이때는 ‘六號室(육호실)’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러다가 5전 잡지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육호특집’으로 바꾼다. 이후 제60호(1933.2.)에서 ‘육호전당(六號殿堂)’으로 바뀌었다가 제72호(1934.4.)에서는 ‘六號도빅크’로 재차 이름이 바뀐다. 명칭을 바꾸거나 잡지 가격이 달라져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5전 잡지로 들어오면서 목차상 육호특집이 강조되는 것은 『별건곤』이 중간독물 유형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⁶⁸⁾

마지막으로 5전 잡지 시기에 종합잡지 『혜성』의 창간과 더불어 ‘문예란’이 사라진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혜성』이 종합잡지로서 문예란을 개설했고, 『별건곤』의 문예란에 작품을 게재했던 작가들은 『혜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그래서 『혜성』 창간호(1931.3.)에는 이광수, 김억, 로아의 시와, 이태준, 염상섭, 방인근, 최영주, 백룡(채만식), 로아의 수필, 채만식의 촌극, 김동인의 연재소설이 실린다. 이에 따라 『별건곤』은 종합잡지 체제를 대항하던 시절의 문예란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중간독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데, 중간독물의 다변화와 전문화는 다음의 10전 잡지에서 본격화 된다.

2. ‘공론 - 중간독물 - 대중문예’의 삼원적 구성(제52호~제73호, 1932.6.~1934.6.)

『별건곤』은 제52호부터 잡지 가격을 10전으로 올리고 분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린다.⁶⁹⁾ 기본적으로 5전 잡지 시기와 유사한 편집 체제를 보이면서 문예 작품이 다시 수록된다. 그리고 5전 잡지 시절부터 중간독물에 집중하기 시작한 『별건곤』의 성향과 더불어 이 시기의 문예 작품들은 대중적 성격이 강하다. 제52호에서 流邦의 「探偵小説 - 戀愛와 復讐」가 실린 것이 대중적 문예작품 수록의 시작이다. 주로 탐정소설이 잡지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형태였으며, 때로 유모어 소설이 수록되기도 한다. 특집으로 시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었

68) 1930년대 초반의 『별건곤』의 중간독물에 대하여 ‘에로·그로·넌센스’의 주제로 분석하는 연구 경향이 있다. 제국 일본에서 전파된 포르노적이고 기괴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대중문화 코드는 본국에서는 일종의 정치성을 가진 문화 현상으로 읽히기도 한다(미리엄 실버그(제), 강진석 외(역),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근대 일본의 대중문화』, 현실문화, 2014.).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특히 『별건곤』에 나타난 에로·그로·넌센스는 주로 일본 제국의 이미지가 이식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대표적으로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5, 한국여성연구소, 2005.).

그러나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별건곤』의 편집 체제 전반을 통해 에로·그로·넌센스를 포함한 중간독물을 총체적으로 관찰하면, 5전 잡지 시기와 10전 잡지 시기의 『별건곤』에서 중간독물이 계층화, 체계화 해 나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별건곤』의 중간독물은 단순히 말초적 재미 위주의 에로·그로·넌센스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69) 5전 잡지 시기의 『별건곤』이 30~36면 사이의 분량이었다면, 10전 잡지 시기에는 58~66면 사이의 분량으로 늘어나게 된다(김은규, 위의 논문, 24~28쪽.).

데, 이때에도 대중성이 강하거나 민요 형태를 띠고 있어서 『별건곤』 전반기의 문예란과는 대비된다.⁷⁰⁾

이러한 『별건곤』의 대중문에 수록 경향에는 동시기 개벽사에서 발간되던 『제일선』과의 관계를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932년 5월 『해성』을 개제(改題)한 잡지로 등장한 『제일선』은 『해성』의 “막연”함을 극복하고 “대중과 한가지로 제일선에 나서”기 위하여 “난잡한 문장 등을 피”하고 “평이함”⁷¹⁾을 목표로 발행되었다. 『제일선』이 대중성을 표방하면서 달라진 점은 『해성』에 비해 문예란의 비중을 늘려 논쟁 및 월평류의 비평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신진작가를 의식적으로 등용한 것이다.⁷²⁾ 이러한 시사 종합잡지의 대중화와 문예란 확대는 비단 『제일선』만에 한정된 상황은 아니었다. 정론의 논조로 『개벽』과 쌍벽을 이루었던 『조선지광』의 후신 『신계단』도 같은 경향을 보이며, 여기에는 검열체제의 강화로 원고 확보 자체가 중요해진 외부적 원인이 있다.⁷³⁾ 따라서 『제일선』의 문예란 확대는, 이것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별건곤』의 문예란을 보다 대중적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10전 잡지 시기 『별건곤』은 삼원적 구성으로, ‘공론-중간독물-대중문예’의 레이아웃을 갖추게 된다. 10전 잡지 시기에 있어서도 『별건곤』이 주력한 분야는 중간독물이며, 중간독물이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 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별건곤』의 마지막 발행호인 제73호(1934.6.)는 이를 잘 보여준다.⁷⁴⁾

제73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전 잡지 시기와 마찬가지로 ‘공론’란은 ‘시사해설’이라는 연재 형태의 기사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고, ‘문예’란은 특집 기획 ‘漫文 漫筆’, ‘當選 遊行 小曲’, ‘特輯讀物’의 3개 편성되어

70) 제55호(1932.9.)에는 ‘特選文藝’라는 특집 기획으로 네 편의 시가 실린다. 수록된 시에는 「無題」(金抱白), 「애기陵을 지나서」(尹風臺), 「울니길 마소」(鄭韶坡), 「農家の 아낙네들」(崔吉龍)이 있는데, 네 편 모두 민요적 형식과 내용을 보이고 있다.

71) 「卷頭言」, 『第一線』 2권 5호, 1932.5., 5쪽.

72) 강용훈,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문예 담론과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 『비교문화연구』 5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304~305쪽.

73) 류석환, 앞의 논문, 2007, 84~86쪽.

74) 다음은 제73호의 목차를 특집 기획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집 기획명’ / ‘기사명’	기사 유형
表紙 卷頭	권두언
‘時事解説’ - 「國際政局의 動向」	공론
‘非常線突破實話’ (2개 기사)	중간독물
‘特輯科學 - 百年後の 世界’ (7개 기사)	중간독물
‘漫文 漫筆’ (3개 기사)	문예
‘當選 流行 小曲’ (2개 기사)	문예
「職業 懺悔錄 (2) - 地獄을 覺悟한다」	중간독물
‘映畫欄’ (2개 기사)	중간독물
‘家庭欄’ (3개 기사)	중간독물
‘六號토빅크’ (8개 기사)	중간독물
‘兒童欄’ (4개 기사)	중간독물
‘特輯讀物’ (5개 기사)	문예



〈그림 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별건곤』의 레이아웃 중 가장 부각되어 있는 것은 ‘중간독물의 유형화’이다. 중간독물은 ‘비상선돌파실화’, ‘특집과학’, ‘취업참회록’, ‘영화란’, ‘가정란’, ‘육호토빅크’, ‘아동란’ 등 총 7개의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비상선돌파실화’, ‘취업참회록’, ‘육호토빅크’가 기존 별건곤식 취미적, 실용적 중간독물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라면, ‘특집과학’, ‘영화란’, ‘가정란’, ‘아동란’은 10전 잡지 시기 새롭게 등장한, 분야별로 유형화 된 중간독물의 양상을 보여주는 특집들이다. 이들은 『별건곤』 발행 후반 유형화 되어 편집 체제로 자리 잡는다. 이들 새로운 중간독물의 특징은 논문적 공론의 지식과 별건곤식 흥미 위주의 독물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73호의 ‘특집과학’ 구획은 ‘백년 후의 세계’라는 부제를 달고 7개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과학을 중심으로 당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본인들의 분야를 예측하는 형식의 글이다. 대서양을 횡단한 여류비행가 아메리아 이아하토의 이름으로 「교통운수는?」이라는 기사가 등장하고, 버트런드 러셀의 이름으로 「가족제도는?」이라는 기사가, 영국 과학자 학술레의 이름으로 「과학은 어찌케?」가, 프랑스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이름으로 「의복은 어찌케?」라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등장하는 필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허구를 전제로 한 구성이지만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이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된다는 데에서 중간독물 내에서의 장르적 발전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영화란, 가정란,

아동란에 실려 있는 기사들은 각 분야의 주요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가정란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들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정의학 지식(「妊娠中の 攝生法」, 「갓난애기재우는 法」)과 가정생활 상식(「主婦의 日常智識」)이 게재되어 있고, 아동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문학(「옴겨진 대궐」(童話), 「중달새동리」(童詩))과 과학상식(「개아미 이야기」, 「미균 이야기」)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분야별로 유형화 된 『별건곤』의 중간독물은, 광고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누가 읽든지 재미있고 정말 재미있는 알기 쉬운 잡지”로, 대중적 공론장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회학자 송호근은 조선 후기부터 양반 공론장이 무너지고 평민 담론장이 상승하는 상황을 분석하며, 식민의 상황 속에서도 발행된 『개벽』을 일종의 시민성을 보여준 잡지로 평가한다. 1920년대에 총체적 개념으로서 계급 분화된 ‘사회’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개념 분화를 최초로 선보인, 지배층이 고안한 ‘사회’(부르주아 사회)에 대해 ‘민중의 사회’를 대치시킨 대중지가 『개벽』이었다는 것이다.⁷⁵⁾ 사실 여기서 지적하는 『개벽』의 민중성은 근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지식층에 가까울 것이다. 『별건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민중적이며 대중적인 공론장을 개척했다. 『별건곤』 발행 후반에 보이는 대중 독자들을 위한 중간독물의 유형화, 장르화에 기반한 편집 체제가 이 증거이다.

Ⅵ. 결 론

『별건곤』 제10호(1927.12.)인 특집호 ‘創刊壹周年記念號(창간일주년기념호)’에는 ‘本誌에 대한 비평과 희망’이라는 특집이 마련된다. 여기서 각계 주요 인사들은 『별건곤』의 편집 체제를 극찬한다. 최남선은 일본 잡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는 찬사를 보내며,⁷⁶⁾ 보성전문학교 교사 신명균은 독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편집 기술이 개벽 시대보다 더 나아졌다고 평가한다.⁷⁷⁾ 창간 1주년의 시점에서 편집 체제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은 『별건곤』은 이후로도 발전을 계속한다. 이러한 편집 체제의 세련됨은 식민지 저널리즘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이에 더하여 정교화 된 편집 체제가 식민지하에서 대항적이며 저항적인 전략으로 작용되었다는 데에서 보다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편집 체제의 전략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네 단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창간호에서 제5호(1926.11.~1927.3.)까지는 취미란과 사회란을 매개로 민중적, 대중적 공론장을 조성해 가는 단계이다. 『개

75) 송호근, 『시민의 탄생 -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변동』, 민음사, 2013, 399쪽.

76) “別乾坤! 나는 실로 嘆服합니다. 엇지면 編輯手段이 그렇게 周到함인가? 日本의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는 雜誌에 比해서도 결코 遜色이 업을 줄로 압니다.”(최남선, 「家 households에 裨이고 심소, 別乾坤에 對한 批判과 要望」, 『별건곤』 제10호, 108쪽.).

77) 잡지를 통독하지도 안고 막연히 비평할 수는 업스나 전제로 보아서 대강 말습하면 “『별건곤』은 우선 편집기술에 잇서 조선에서 탁월하다고 봅니다. 즉 독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잇서서 그 심리에 맞도록 취급하는데는 아모리 보아도 특색잇는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밧게 업스며 그 특장에 잇서서는 『개벽』 시대보다도 오히려 나아졌다고...(중략)...다른 주의자나 각 출판경영자들이 전혀 상대자의 심리를 알지 못하고 잇는 데에 비교하면 『별건곤』은 조선출판계에서 왕이라고 감복할 수 밧게 업스며 독특한 색채가 잇다고 단언”(신명균, 「技術이 첫재 雜誌界의 王, 別乾坤에 對한 批判과 要望」, 『별건곤』 제10호, 108쪽.).

벽』의 폐간과 『신여성』의 휴간에 이어 개벽사에서는 대중적 정체성을 표방한 잡지 『별건곤』을 창간했고, 『별건곤』은 이를 통해 민중적, 대중적 여론을 수집하고 공론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제6호에서 제28호(1927.4.~1930.5.)에 이르는 시기에는 특집호 기획과 특집기사 위주의 편집 체제가 두드러진다. 『별건곤』은 조선민족에게 공유되는 역사와 공간, 동시대와 계절까지도 공통지식과 공통감각으로 만든다. 이는 단순히 표상 만들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의 존재 확인과 더불어 민족적 망탈리테를 구성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이후 제29호에서 제37호(1930.6.~1931.2.)에 이르는 시기에 『별건곤』은 종합잡지 편집 체제를 도입한다. 종합잡지 체제가 대중잡지에 도입되면서 대중적 공론장은 체계화 되어가고, 이는 개벽사에서 발행되지 못한 잡지들의 지식인 저널리즘 공론장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38호에서 제73호(1931.3.~1934.6.)에 이르는 시기의 『별건곤』은 대중적 공론장 내부의 다변화 전략을 추구한다. 이 시기 『별건곤』은 중간독물에 주력하는데, 개벽사 내에서 다른 시사종합지의 출현과 더불어 『별건곤』이 본래의 대중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간독물을 보다 체계화 하고 장르화 하는 데 기여하여 대중적 공론장의 다변화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잡지의 편집 체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의 방법이, 여전히 결핍과 부재로 존재하는 암묵적인 식민지 저널리즘 공론장의 심층을 살필 수 있는 독해법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기 다른 잡지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향후 과제로 남기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別乾坤』

『中央公論』

2. 연구 논저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길사, 1980.

강용훈,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문예 담론과 식민지 조선의 매체 지형」, 『비교문화연구』 5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김경미, 「『별건곤』의 순수 ‘소설’과 ‘취미독물’의 상관성 연구」, 『어문학』 135, 한국어문학회, 2017.

김복순, 「별학(別學)의 탄생과 다원적 시민사회의 구상 - 『별건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1, 대중서사학회, 2014.

김영범, 「망탈리테사: 심층사의 한 지평」, 『사회와 역사』 31, 한국사회사학회, 1991.

김은규, 「1920/30년대 근대 취미독물 잡지 <별건곤>을 통한 개벽사의 매체 발행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연구』 39: 2, 한국출판학회, 2013.

- 류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현호, 「문화정치가 신문의 위상과 반일검열의 내적논리 - 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구조 변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갈등 구조 -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7,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 송호근, 『시민의 탄생 -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민음사, 2013.
- 송호근, 『인민의 탄생 - 공론장의 구조변동』, 민음사, 2011.
- 이경돈, 「『三千里』의 서사와 텍스트 정치 - 설문과 순례의 서사들」,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이경돈, 「취미라는 사적 취향과 문화주체 대증」, 『대동문화연구』 5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 이경돈, 「『別乾坤』과 近代 趣味 讀物」, 『대동문화연구』 4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 이승윤,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6, 한국문학회, 2012.
- 이에나가 유코, 「개벽과 별건곤을 통해 본 한국인의 자량」, 『인문과학연구』 3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정가람, 「1920~30년대 대중잡지 『별건곤』의 역사 담론 연구 -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1, 대중서사학회, 2014.
-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 실학』 57, 역사실학회, 2015.
- 차혜영, 「개벽사 경성 표상의 정치학, 『별건곤』 1929년 9월 대경성 특집호 연구」, 『동학학보』 37, 동학학회, 2015.
- 차혜영,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표상의 정치학, 개벽사 『별건곤』의 ‘조선의 자량’호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8,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 천정환, 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 2006.
- 채석진, 「제국의 감각 :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 연구』 5, 한국여성연구소, 2005.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1~3, 현암사, 2004.
- 나카무라 유지로(저), 양일모 · 고동호(역), 『공통감각론』, 민음사, 2003.
- 미리엄 실버그(저), 강진석 외(역), 『에로틱 그로테스크 년센스 : 근대 일본의 대중문화』, 현실문화, 2014.
- 베네딕트 앤더슨(저), 서지원(역), 『상상된 공동체』, 길, 2018.
- 위르겐 하버마스(저), 한승완(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 제프리 K. 올릭(저), 강경이(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 찰스 테일러(저), 이상길(역), 『근대의 사회적 상상: 경제, 공론장, 인민 주권』, 이음, 2010.

浅海保, 『中央公論新社120年史』, 中央公論新社, 2010.

近藤信行, 「滝田樗陰とその時代」, 『中央公論文芸欄の大正』, 中央公論新社, 2006.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Configuration Strategies of Journalism Public Spher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Colonialism: Focused on the Magazine Editing of *Byeolgeongon*(別乾坤)*

Yee, Sun Kyung**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figuration strategies of journalism public sphere against the Japanese Empire focused on the magazine editing techniques of *Byeolgeongon*(別乾坤). *Byeolgeong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pular magazin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as been highly valued by its refined magazine editing techniques and layout. Its sophisticated magazine composition is not just for the satisfaction of their readers' tastes, but for the formation of Journalism Public Spher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Colonialism.

The concrete strategies are divided four phasis diachronically. In the first phase, from the first issue to vol.5,(November 1926 to March 1927), they constructed the popular journalism public sphere through the gathering of public opinion. In the second phase, from vol.6 to vol.28(April 1927 to May 1930), *Byeolgeongon* had focused to publish several special issues, and their topics were related to the Korean nationalism symbols. They urged Korean people to have common sens intellectually and emotionally about their lost nation. In the third phase, from vol.29 to vol.37(June 1930 to February 1931), they adopted the layout of general-interest magazine editing techniques even though *Byeolgeongon* pretended to aim for popular magazine. It led to the formation of systematic and organized popular journalism public sphere, after all. In the last phase, from vol.38 to vol.73(March 1931 to June 1934) the texts of *Byeolgeongon* diversified suitable for their various rears.

In this study, what all this shows is that the way we interpret the hidden journalism public sphere of colonial Korea.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work on comparing and contrasting various magazine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Colonialism.

[Key Words] *Byeolgeongon*(別乾坤), Public Sphere, Journalism Public Sphere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Popular Magazine, General-Interest Magazine, Magazine Editing, Preface, Editor's Not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B5A01024176)

**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